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6

6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不二(50x50) • 이가은

* 이가은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현대미술전공
 불교의 불이(不二)사상을 화폭에 담아내는 화가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16 / 6

다시 읽는 산방한담	4	파장
처음 마음으로	8	육면 남자의 염불공덕
일요특강	12	노인이 웃는 세상 ②
실천하며 삽시다	17	내가 먼저 아껴 사용합시다
운명보다 강한 열정	18	전 세계 사람들의 희망 폴 포츠
옛날의 금잔디	20	여행에서 만난 60대 부부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24	'나'에서 시작되는 배려
아름다운 마무리	26	6월 결연 대상자 - 이영미 어르신(가명)
숨어서 피는 꽃	28	배려와 질서유지는 인간의 자존심
공감으로 소통하실래요	32	이런 말은 절대로..
아버지와 함께한 하루	35	마음 빛
향기나는 우체통	38	장학생에게서 온 편지, 교도소에서 온 편지
사찰의 숲을 거닐다	40	생물자원의 보물창고 무등산 - ①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3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6년 6월 1일 발행 / 통권 256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파장

글·법 정(法 頂)

시골에서 장이 서는 날은 흐뭇한 잔칫날이다. 날이 갈수록 각박해가는 세상임에도 장터에는 아직 인정이 남아 있다. 도시의 시장에는 차디찬 질서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미가 없다. 하지만 시골 장터에 가면 예전부터 전해 오는 우리네의 포근한 정서와 인정이 넘친다. 백의민족의 자취를 오늘 우리들은 찾을 길이 없지만, 시골 장터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백의민족임을 확인하게 된다.

언젠가 정부에서 시골의 장이 소비적이고 비능률적이라는 이유로 없애 버린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몹시 아쉽고 안타까웠다. 유통(流通)이 더딘 궁벽한 산간벽지나 시골에서는 닷새에 한 번씩 서는 장이 생활필수품을

사고 파는 유일한 기회일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소식을 전하거나 알아오는, 그리고 우체국과 면사무소 같은 데 들러 불일을 보게 되는 날이기도 하다. 어디 그뿐인가. 수십 리 밖에 있는 일가친척을 그날 만나볼 수 있고, 성글었던 사이끼리 주막에 마주 앉아 회포를 푸는가 하면, 미적미적 미루던 혼사(婚事)를 매듭짓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다.

소비적이고 비능률적인 거야 도시의 백화점이나 상가가 더하면 더했지 시골 장보다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비인간적으로만 굳어가는 요즘의 풍토에서 시골의 장이 없어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유일하게 남은 인간적인 터

전마저 막혀 버리는가 싶었기 때문에 그토록 서운하고 안타까웠던 것이다.

차디찬 질서보다는 질서 이전의 그 훈훈한 인정이 그리워,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시골 장날을 즐겨 찾는다. 장구경은 아무래도 파장이 제격이다. 아침 초장은 먼 곳에서 모여드느라고 활짝 펼쳐지기 전이라 좀 싱겁다. 마치 본격기에 들어가기 전에 조무래기들이 치르는 오픈 게임 같아서다. 그리고 한창 때의 장은 너무 소란스럽고 봄벼서 구경할 만한 여백이 없다.

하지만 파장은 듣성듣성 자리가 나서 이곳저곳 기웃거릴 만하다. 장꾼들이 한낮에 비해 뜸해졌고, 더러는 주막에서 혀 꼬부라진 소리가 오고간다. 장돌뱅이들은 장이 기우는 걸 보고 그저 혈값에 떨어를 한다고 고래고래 고향을 친다. 그 소리를 듣고 순진한 시골 사람들은 무슨 황제라도 잡은 듯이 모여든다. 한쪽에서는 눈이 번쩍거리는 사내 몇이서 돈

놓고 돈 먹으라고 넌지시 미끼를 보이면서 아바위를 시작한다.

재작년이던가, 이른봄에 남도(南道) 쪽으로 행각을 할 때였다. 하동 쌍계사에서 화엄사로 가기 위해 화개에서 버스를 탔다. 섬진강을 끼고 40리쯤 거슬러 올라가면 화엄사 입구에 닿는다. 절 쪽으로 길을 잡으려다가 구례읍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여기저기 무리지어 오는 걸 보고, 아하 오늘이 구례읍 장날이구나 싶어 장구경을 가기로 발길을 돌렸었다. 그야말로 가던 날이 장날이었던 것이다.

보아하니 장은 이미 기울고 있었다. 장꾼들이 한물 빠져나간 뒤인 듯 여기저기 지푸라기며 신문지쪽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펼쳐놓은 전마다 시들해 보일 정도로 생기를 잃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오랜만에 보는 장이라 흥겹기만 했다. 거기에는 15,6년 전 이 장터를 찾아다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쌍계사 탑전(塔殿)에서 지내던 시절, 한 달에 한 번씩 이 장터에서 장을 보이다 먹었었다. 그 시절 산골에는 버스도 다니지 않던 때라 장날이면 트럭이 절동네 어귀에서 장터까지 다녔었다. 어둑어둑한 새벽, 덮개도 앉을 자리도 없는 트럭 위에 올라 차가운 강바람에 얼굴을 할퀴면서 장터에 내리면, 그때를 맞추어 여기저기 움막에서 물썩물썩 김이 서러 올라왔다. 빈속이라 팔죽을 두어 그릇 비우고 나면 얼었던 몸이 풀리고 노곤한 졸음이 왔다. 돌아가는 길에는 다시 그 트럭 위에 봄비는 짐작과 함께 실려 가곤 했었다.

생기를 잃고 기울어가는 파장 한 쪽에서 왁자지껄 사람들의 고향소리가 들려왔다. 웬일인가 하여 그쪽으로 가보았더니 구경거리가 벌어지고 있었다. 건강하게 생긴, 예의 돈 놓고 돈 먹으라는 아버위꾼과 장꾼 사이에 시비가 붙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수룩하게 생긴 시골 장꾼이 불량하게 생긴 세 사람의 아버위꾼한테

몰렸다. 들리는 곡절인즉, 아버위꾼이 속임수를 쓰다가 발각되어 장꾼이 잃은 돈을 내놓으라는 데서 시비가 시작된 모양이었다.

세 사람의 아버위꾼들은 핏발 선 눈을 굴리면서 언제 속임수를 썼느냐고 때릴 듯이 대들었다. 곁에서 판단하기에도 그들이 속임수를 썼음이 분명한데, 그쪽에서 도리어 큰소리를 치며 대드는 바람에 어수룩한 장꾼이 비슬비슬 물러서려는 참이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장꾼들이 모여들어 저 낯강도들을 이번에는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고 고향들을 쳤다. 지난 장에도, 저지난 장에도 저 꽤거리들이 속임수로 아무개 아무개의 돈을 몽땅 털어갔다고 야단야단이었다. 처음에는 기세등등하게 불량을 떨던 아버위꾼도 여기저기서 모여드는 장꾼들을 보고 드디어 기가 꺾이고 말았다.

이때였다. 둘러섰던 장꾼들이 우르르 몰려들면서 아버위꾼들을 치고 받았다. 한참 동안 었혔던 덩이가

풀리는가 했더니, 어느새 아버위꾼들은 저만치 달아나고 있었다.

그때의 그 광경이 나는 지금도 눈에 선하다. 어수룩한 시골 사람들한테서 어떻게 그 같은 용기와 투지력이 나왔을까? 새삼스레 인내에도 한도가 있다는 말이 떠오른다. 대낮에 번번히 속임수를 써서 사람의 눈을 속이고도 오히려 큰소리치던 그 몰염치한 낯강도들은 그저 어수룩하고 선량하기만 한 시골 사람들을 힘없는 겁쟁이로만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네의 행패에 두려워하는 그 공포심을 이용하여 멋대로 속임수를 부린 것이다.

그러나 어수룩하고 무력한 듯한 겁쟁이들도 인내의 극에 달하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필사적으로 맞서게 된다는 사실을, 불의와 횡포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생명의 오묘한 이치를 나는 그날의 파장에서 거듭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잔치는 끝났더라
마지막 앉아서 국밥들을 마시고

빠알간 불 사르고
재를 남기고
포장을 걸으면 저무는 하늘
일어서서 주인에게 인사를 하자
결국은 조금씩 취해가지고
우리 모두 다 돌아가는 사람들
모가지여
모가지여
모가지여
모가지여
멀리 서 있는 바닷물에서
난타(亂打)하여 떨어지는 나의 종소리.

파장을 보고 화엄사로 들어가면서, '잔치는 끝났더라, 잔치는 끝났더라, 마지막 앉아서 국밥들을 마시더라' 하고, 미당(未堂)의 시 〈행진곡〉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외었다. 1974

-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육면 남자의 염불공덕

글 • 덕 일(德日)

초하루법회에 나와서 부처님 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회하는 불자님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 달을 살아오면서 잘못된 점을 참회하고 또한 앞으로 살아갈 한 달을 부처님께 각오하고 발원을 올리는 일은 크나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염불공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은 들어 보셨겠지만, 중국 여산 동림사에서 행한 혜원스님의 염불결사, 건봉사의 만일염불결사, 백련사의 백련결사, 순천 송광사의 정혜결사 등 중국과 우리나라의 불교 역사에 여러 가지 결사가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극락정도에 왕

생하기를 바라거나 악업을 소멸하기를 바라거나 또는 선근을 증장시키는 발원을 하며 결사운동을 했습니다. 결사라는 말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길상사에서도 요즘 결사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 3년 결사, 금강반야바라밀경 독경 3년 결사가 그것입니다. 약 천 명에 가까운 많은 불자들이 신묘장구대다라니와 금강반야바라밀경 3년 독경 결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길상사 창건 이래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음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염불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부르는 행위와 같습니다. 불보살의 명호를 외우는 소리는 내가 나를 부르는 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일연스님은 삼국유사에서 몸종 육면의 염불공덕 이야기를 기록하며 다음과 같이 찬탄했습니다.

“저쪽 가까운 옛 절에 불등이 밝았는데 방아를 찧고 돌아와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니 밤이 2경이로다. 한소리로 다시 말하면 한 염불로 부처를 이루고자 손바닥을 뚫어 노끈을 꿰었더니 육신을 잊었도다.”

또 “육면(郁面)이라는 여자 몸종이 있었는데 그 몸종이 간절한 마음으로 9년여 동안 염불을 하다가 그 염불공덕으로 인하여 극락왕생을 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신라 경덕왕 때의 일입니다. 진주 지방에서 신심 있는 불자들이 미타사라는 절을 짓고서 극락왕생을 발원하고자 계를 조직하여 염불결사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결사에 동참한 불자들은 현생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으니

이왕이면 열심히 정업을 닦아서 극락왕생을 하면 좋겠지 않을까? 나 혼자 극락왕생을 발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 같이 극락왕생할 수 있는 염불행을 닦아 보자고 하여 모인 것입니다.

염불결사 대중 중에 귀진(貴珍)이라고 하는 아간 계급의 귀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자 몸종 육면은 주인인 귀진을 모시고 미타사에 갔다가 법당 밖에서 주지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염불행을 닦게 되면 정말 극락왕생할 수 있으므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염불하여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원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육면은 불법은 귀천이 없는 평등법인데 몸종인 나도 기도하고 염불하게 되면 극락왕생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는 밤이고 낮이고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진은 법당 밖에서 자신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는 육면을 못마땅하게 여기고는 염불을 하지 못하도록 매일 곡식 두 섬을 방아로

짙게 했습니다. 그러나 옥면은 염불을 못 하게 될까 봐 초저녁에 방아를 다 짚어 놓고는 절로 달려가 밤늦도록 염불을 했습니다.

온종일 방아질을 하느라 고단한 옥면은 법당 밖에서 염불을 하면서 졸지 않기 위해 마당 좌우에 긴 말뚝을 세우고 자신의 두 손바닥을 뚫어 노끈으로 꿰어 그 말뚝에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높이 쳐들어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했습니다.

그렇게 옥면이 법당 밖 마당에서 9년 동안이나 지극정성으로 염불을 하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옥면 낭자야, 법당으로 들어가서 염불하거라.”

법당 안에서 염불을 하고 있던 대중들도 같은 음성을 듣고 놀라 옥면을 법당에 들어오게 하여 염불하도록 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옥면이 법당에서 염불을 하는데 얼마 후 서쪽에서

천상의 음악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옥면의 옥신이 솟구쳐 천장을 뚫고 올라가 서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연화좌에 앉은 부처님의 진신으로 화현하여 큰 광명을 발하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때 소백산에 신발이 하나 떨어졌는데 거기에 보리사라는 절을 짓고, 또 옥면이 옥신의 몸을 벗은 자리에 제2보리사를 창건하고 옥면이 하늘로 날아오른 전각이라는 뜻으로 ‘옥면등천지전(郁面登天之殿)’이라는 현판을 내걸었다고 삼국유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옥면이 서방 극락정토로 왕생한 것을 목격한 귀빈은 옥면을 괴롭혔던 일을 참회하며 대궐 같은 자신의 집을 시주해 법왕사라는 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이제 보리사나 제2보리사는 없어지고 삼국유사의 기록과 절터만 남아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뒤이어 옥면의 전생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팔진이라는 스님이 천 명의 대중을 데리고 결사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대중이 두 패로 나뉘어 한 패는

힘껏 일하고 한 패는 정성껏 수련했습니다. 그때 일하는 패의 총무 격인 스님이 삼보를 비방하고 염불을 게을리하며 계율을 어긴 과보로 죽어서 부석사의 소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소가 부석사에서 경전을 등애다지고 나른 공덕으로 인해 인간의 몸을 받아 여자 몸종 옥면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노비의 신분이라 이름이 없었을 테지만 얼굴이 예쁘고 아름다웠던지 마을 사람들이 아름다울 옥(郁) 자, 얼굴 면(面) 자 해서 옥면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삼국유사에 실린 옥면 낭자 설화를 허황되고 의심스러운 이야기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인과응보의 준엄함과 염불수행의 공덕, 참회공덕 등 불자가 지녀야 할 지혜와 실천의 덕목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길상사에서도 옥면 낭자 설화의 가르침을 좌표 삼아 신묘장구대라니 33독 기도와 금강반야바라밀경독경 천일기도를 결사했습니다. 불자 여러분도 길상사의 결사운동에 동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동참 공덕으로 이 생애, 또 다음 생애, 또 그 다음 생애라도 우리가 인간 몸을 받을 수 있고, 빈천하게 살지 않고 또한 악업을 소멸할 수 있으며, 또한 선근을 증장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길상사 오감(五感) 자기경영 아카데미 <일요특강 네 번째>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무소유

네 번째 초청 강사. 김병조(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6월 26(일) 오전 11시 / 길상사 설법전

김병조 교수는 “배추머리”라는 별명으로 1980년대 ‘지구를 떠나거라~’ ‘나가 놀아라~’ 등 수많은 유행어로 큰 인기를 얻으신 개그맨입니다. 현재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로 ‘명심보감’의 지혜를 전하며 새로운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6월에는 김병조 교수님을 초청하여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무소유’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노인이 웃는 세상 ②

글 • 황창연

우리가 세상을 잘 살다 가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30년 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재미있는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주 5일제가 되면 천주교 신자들은 성당에 안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토, 일요일 경치 좋은데 놀러 가느라……. 프랑스에는 천주교 신자의 비율이 97%였습니다. 주 5일제 후에 주일날 성당 가는 비율이 8%나 떨어져 신자가 90%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파리를 다 빠져나가 주말날 오후에 차가 들어오느라 난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신부가 되면 성당을 경치 좋은 곳에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말이면

경치 좋은 절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천주교 교구청에서 강원도 평창에 있는 15,000평의 땅을 줬습니다. 생태 마을을 꾸미라고요. 꾸며놓으니까 자연이 아름답고, 봄에 꽃이 피면 천국 같고 정말 아름답기에 참 행복합니다. 길상사도 참 아름답지요. 제가 50살인데 23년을 15,000평 꾸미는 데 다 썼습니다. 그랬더니 교구청에서 생태 마을 꾸민 경험을 가지고 경기도 여주에 158,000평의 땅을 꾸며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년 전부터 그걸 꾸미고 있습니다. 이걸 하느라고 60살까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처럼 생태 마을을 꾸미는 사람은 나무를 심으면서 10년 후에는 그들이 어떻게 지리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있고, 미래를 꿈

꾸니 하루하루가 즐거운 겁니다.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행복한 법입니다.

작년에 아프리카 잠비아를 갔었습니다. 무프리라는 지역을 갔는데 인구가 15,000명인데 에이즈 환자가 1,600명이었습니다. 그 지역 고아원에 갔었는데 200명의 고아 중 에이즈에 걸린 아이가 100명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몸무게가 5kg이 넘어야 에이즈 약을 투여할 수 있어서 분유를 지원하고 의사와 함께 눈이나 치아를 검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700명의 아이가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가는데, 수녀님들이 수녀원에 고아원, 학교, 병원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어느 한 농장에 들렸는데 80만 평의 대지 중 2만 평밖에 농사를 못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농사를 다 안 짓고 그냥 땅을 놔두고 있는지, 땅을 잘 활용하면 고아원, 병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수녀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은 포클레인도 없고 트

랙터도 없고 경운기가 없어서, 맨손으로 농사를 지으면 아무리 잘 지어도 1인당 1,000평 밖에는 못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만큼을 도와주면 되겠냐고 물었더니 2억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국에 돌아와 많은 분들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까지 6억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포클레인, 트랙터, 경운기와 기계를 고칠 수 있는 기술자를 보냈습니다. 또 닭을 키워서 팔고 싶다고 해서 냉동고를 사주고, 닭장을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그 후 수녀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도와주느냐고요. 그래서 같은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80만 평 땅 한가운데서 오아시스가 나와서 하루 500t의 물을 쓸 수가 있는 행운이 생겼습니다. 저는 80만 평 땅을 가꾸는 일에 또 70살까지 하고 싶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살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조만간에 100세 시대가 온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시다.

우리나라에서 3년 전에 100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이었는데 아세요? 2,4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100세 이상이 몇 명인지 아세요? 13,400명이고 90세 이상은 134,000명, 80~90세까지는 970,000명, 70~80세까지는 270만 명입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이 몇 명인지 아세요? 649만 명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인원이 270만 명인데 우리 어렸을 때 골목마다 어린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길에 나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안 보입니다. 70세 넘은 분들 중에 활동하는 분들은 얼굴에 생기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해보면 웃음이 시원합니다. 생기가 흘러넘칩니다.

연세가 7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TV를 볼 때 앉아서 보지 말고

자전거에 올라가서 운동하면서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행복해지고 싶다면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다리에 근육이 풀리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자기 발로 화장실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 줄 아셔야 합니다.

저희 생태 마을 이름이 성 필립보 생태마을입니다. 왜 필립보냐 하면 제가 모시던 선배 신부님이 필립보입니다. 그분이 주신 집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분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분이 87세에 돌아가시기 전에 용변 때문에 몇 차례 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들어갔는데 씹는 걸 까먹는 치매가 왔습니다. 많은 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씹는 걸 까먹는 치매가 옵니다. 이걸 옛날에는 곡기를 끊는다고 했습니다. 곡기를 끊으면 2~3주면 돌아가시겠구나 했는데 의사들이 와서 씹는 걸 못하니까, 목에 구멍을 뚫어서 주스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신부님이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늘 하셨다고 해도,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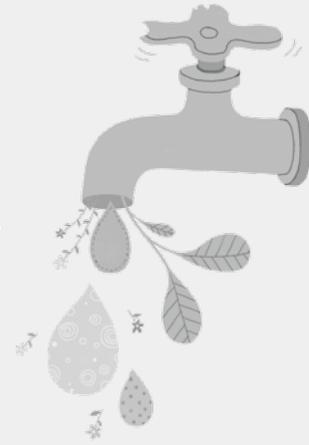
사의 입장에서는 사전 동의서가 없어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실험대상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신부님과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영정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영정사진을 50세 때 멋있었던 사진을 걸고 싶었는데, 신부님은 70세 때 찍어놓은 걸 걸고 싶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장례식장에 가면 영정사진들이 다 너무 슬쁩니다. 안 그래도 슬픈데 영정사진을 보면 더 슬퍼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젊었을 때 멋있고 아름다웠던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49만 명 중에 치매에 걸린 사람이 50만 명, 10명 중에 한 명이 치매에 걸리는데, 치매에 걸리는 이유가 뭐지 아십니까? 안 돌아다녀서 그렇습니다. 뒷방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운동하고 돌아다녀야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노인의 행동 중에 하나는 정부에서 나오는 연금이나 노령연금을 모아서 자식에게

주는 겁니다. 돈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써서 나중에 지쳐서 죽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움직이는 사람들은 제가 보았을 때 주무시다 돌아가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도 주무시다 돌아가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아마 절에 자주 오시는 불자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지난 6월에 필라델피아에 강연을 마치고 나서 어느 한국인 한 부부가 자신의 차로 버지니아까지 안내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차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신부님 저는 프레젤(Pretzels)이라는 빵을 구워 파는 일을 합니다. 어느 날 저희 가게에 늙은 흑인이 오더니 프레젤 300개를 시키더군요. 내일 찾아갈 거냐고 물었더니, 아니 지금 찾아갈 거라고 하는거예요. 대개는 전날 예약을 하는데, 기다리겠냐고 물었더니 그러겠다고 해서 두 시간을 구워서 줬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이 할아버지가 또 똑같이 주문을 하는거예요. 이 사람이 날 동양 사람이라고 무시하나? 왜 예약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시키는 거지? 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직업이 뭐냐고 물었더니 학교 수위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 아이들 간식으로 사주고 싶어 온 거라고 했어요. 또 다음 주에 와서 주문하길래 이름을 물었더니, 미스터 월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왜 예약을 안 하고 두 시간을 앉아서 기다리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자신은 예약을 하면 내일 다시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암인데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릴 적 이 빵으로 허기를 채웠던 따뜻한 추억 때문에, 수위로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아침을 거르고 오는 학생들을 먹이고 싶어서 자신의 돈과 시간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다음 주부터 월리는 오지 않았답니다.”

여러분은 죽기 전에 행복하지 말

고 지금 행복해야 합니다.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고 죽는 날 기쁘게 죽으면 되는 겁니다.

결론으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70억 인구 중에 그 몇백 명만 구원하려고 죽었을까? 저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지장보살님께서도 단 한명도 극락에 안 올라가면 지옥에 머무르겠다. 그를 위해 살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어서 좋은 데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나한테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해주고, 죽을 때 다 나눠주고 행복하게 죽으면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감사합니다.

* 2014년 8월 31일

황창연 신부 초청 일요특강 정리

내가 먼저 아껴 사용합시다

손 씻을 때 어떻게 하세요?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 놓으시나요? 아니면 비누 칠을 할 때는 잠시 잠그시나요? 설거지나 세수, 먼도, 세탁 할 때는 어떻게들 하고 계시나요?

휴지는 어떻게 뽑아 쓰시나요?

용도에 맞게 조금씩 잘라 쓰시나요? 아님 그냥 원 크기대로 사용하시나요? 혹시 걸레보다 휴지를 더 쉽게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볼펜이나 화장품, 투명 테이프 등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한 번 쓰면 버려야 하는 것인가요. 아님 리필 할 수 있는 것들로 골라 쓰고 계시나요?

유행 지난 옷이나 그릇 같은 것들은 또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그래도 잘 사용하는 편인가요? 아님 그냥 잘 보관 하는 편, 그도 아님 버리고 새것으로 사는 편인가요?

자신을 돌아볼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행동들에 얼마나 알뜰살뜰함이 배어 있는지 수시로 나를 돌아다보아야겠습니다.

하찮은 물건일지라도 그것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아껴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물론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 물건 하나하나까지와도 정을 나누며 아껴주는 이, 그가 바로 맑고 향기로운 사람이 아닐까요!

전 세계 사람들의 희망 폴 포츠

글 • 김창수(희망아카데미 원장)

2007년 6월 영국 ITV의 스타 발굴 프로그램 '브리튼즈 갓 탤런트'에서 폴 포츠가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의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노래해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의 산증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 역전의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2007년 7월에는 데뷔앨범 <원 찬스(One Chance)>가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발매되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핸드폰 세일즈맨이지만 끝내 자신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뤄낸 폴 포츠의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고 그의 감동적인 노래는 세계 순회공연을 통

해 더욱더 세상 사람들 속으로 파고 들어 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8년 서울과 부산에서 공연을 펼쳐 희망을 얻고자 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전달했었다.

어렸을 때부터 못생긴 외모 탓에 왕따를 당하는 등 힘든 유년기를 보냈으며, 성악가를 꿈꾸었지만, 종양으로 인한 수술과 교통사고 등으로 좌절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평범한 휴대폰 세일즈맨 생활을 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혼자 있을 때는 언제나 노래를 불렀고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희망을 품고 살았다. 그토록 불행한 인생을 가진 폴 포츠는 36세 늦은 나이에 '브리튼즈 갓 탤런트' 대회에 참가했

다. 못생긴 외모의 자신감 없는 목소리의 비호감형인 휴대폰 외판원이 오페라를 부르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36년 동안 준비한 오페라에서 최선을 다했고 결국은 대회에서 우승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

인생의 불확실성의 끝이 어딘지를 알 수 없다. 폴 포츠는 36년을 불확실성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36년이라는 긴 세월의 불확실성 속에서 그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희망이라는 확실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자신의 꿈을 실현시켰다. 성공이라는 결과만 놓고 판단하면 참 쉬워 보이는 삶일 수 있지만, 그 과정은 결코 보통의 삶이 아니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휴대폰 외판원에서 일약 스타 성악가가 된 폴 포츠의 성공담에 매료되었다. 자신이 제2의 폴 포츠가 되길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삶의 희망을 불태우며 노력하고 있다.



2007년 가난한 휴대폰 외판원은 세계를 감동시킨 오페라 가수가 되었다. 영국에서 시작된 감동의 물결은 전 세계를 감동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했었다. 꿈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가치를 찾아 36년을 지켜온 열정이 현실이 되고 그 현실에 세상 사람들은 감동했다. 자신의 꿈을 끝까지 실천한다면 누구라도 가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폴 포츠는 세상 사람들에게 입증해 보였다. 희망은 그렇게 현실로 다가옴을 사실로 증명해 보인 그의 인간 승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

여행에서 만난 60대 부부 이야기

글 • 윤언덕

약 10년 전의 일이다. 결혼 15주년 기념으로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등을 거치는 단체여행 상품을 구매하여 1주일간 동남아를 여행한 적이 있다. 단체여행 상품이라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같은 일행 중에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뜻밖에 여행이 즐거워지는 법이다. 출발, 공항 로비에 여행사 직원이 도착하자 근처에 있는 초면의 일행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알게 된 것이지만 단체 관광 일행의 구성은 이랬다.

40대 중반의 우리 부부 이외에 50대 초반의 부부와 자녀 둘,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부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 30대 후반의 부부 해서 12명의 인원이 일주일을 함께 여행하게 되었다. 여차피 다들

초면이어서 첫날과 이튿날은 관심이 없었지만, 사흘째 날 즈음에는 누가 어느 동네에 살고 직업은 무엇인지까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그것은 명품으로 온몸을 도배한 멋쟁이 60대 중반 부부 때문인데 두 분은 틈만 나면 일행들에게 눈을 맞추면서 '어디 살아요? 무슨 일을 하세요?' 등의 질문으로 일행들의 어색한 분위기를 화기에애하게 풀어갔다.

그러나 그분들은 20대 후반 신혼 부부로 보이는 젊은 커플에게는 '댁들은 신혼부부요?'라고 물었다가 그들이 '그냥, 친구 사이예요.' 라고 답하자, '결혼도 않은 사람들이 이래도 돼요?' 하며 면박을 줄 정도의 직선적인 면이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첫머리에 60대 중반 부부라고 칭한 두 분의 나이는 부인이 65세였고 남편은 69세였다. 그분들은 손주가 있으므로 편의상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칭하겠다. 나이가 드셨지만, 할아버지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한량(閑良)' 그 자체였고 할머니의 고운 자태(姿態)는 젊은 시절 대단한 미인이었음을 첫눈에 알 수 있었다.

일주일간의 여행 중에 우리 부부는 자연스레 노부부(老夫婦)와 매우 친해졌고 거의 날마다 붙어 다녔다. 아마 너그럽고 온후한 두 분의 성품이 우리를 끌었던 것 같다.

고혈압과 백내장을 안고 산다는 할아버지는 멋있는 옷차림의 능변가였다. 특이한 점은 할아버지가 식사 때나 이동할 때 물을 마시지 않고 대신 항상 캔 맥주를 드신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식사 후 집합할 때면 호텔의 편의점 등에 가서 캔 맥주를 대여섯 통 사서 가방에 넣은 후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다 중간에

맥주가 동나면 안내자(가이드)에게 차를 세우게 하고 가게에 가서 시원한 캔 맥주를 골라 사오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내가 신기해하며 쳐다보면 맥주 한 캔을 내게 건네며

“선생, 드세요, 내가 이것 마시는 것 외에 낙(樂)이 뭐가 있겠수?”

하는 것이 그 여행의 일상이었다. 전직 사진작가였던 할아버지에게 기념사진을 부탁해서 찍은 사진이 지금도 몇 장 남아있는데 여행 후 PC에 옮겨서 확대해보니 뭐, 사진이 매우 평범해서 좀 놀라기는 했다.

홍콩에서였다. 낮에 허버 시티(Habour City)라는 쇼핑센터를 관광했는데 신기한 물품이 많아 제법 볼만했다. 나는 평소에도 갖고 싶었던 만년필과 빅타이를 구매하다가 옆 코너에서 할아버지가 유독 화장품, 액세서리를 많이 사는 것을 보게 되었다. 밤에 야경을 보면서 노부부와 함께 맥주를 마실 때 내가 할머니에게 물어보았다.

“참 좋으시겠어요? 바깥어른이 화

장품, 목걸이, 반지 등 여성용품을 다양하게 사시던데 자세히 보니 자식들에게 줄 선물은 아닐 것 같고 말이예요. 사모님을 많이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답변이 의외였다. “저건 나에게 줄 것이 아녜요. 우리 영감에게는 애인이 있어요. 애인 주려고 저러는 거야!”

생각도 못 한 놀라운 이야기여서 내가 물었다.

“아니, 사모님, 그런데 질투 나지 않으세요?”

할머니의 대답은 거침없었다.

“에이, 질투는 무슨. 나도 애인이 있어. 히히, 나도 내 애인 주려고 선물 많이 샀어요.”

순간 매우 재미있는 분들을 만났다고 하는 생각에 엔도르핀이 돌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그 순간에도 계속 맥주를 마시고 계셨다. 할머니는 내가 질문할 틈을 주지 않고 다 음과 같이 이야기를 죄다 전개하시는 게 아닌가.

“5년 전에 영감에게 애인이 있다

는 사실을 알았고 그때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많이 살겠어? 그지? 영감이나 나나 앞으로 살아갈 날이 그다지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서로 즐겁게 살아야지. 이런 것 갖고 서로 싸우면 둘 다 말년이 불행해지잖아. 그래서 영감을 이해하려고 나도 애인을 구했어요.”

놀라웠다.

“아, 그러셨군요.”

“선생님, 내 이야기 들어봐요. 언젠가 영감이 시내 호텔다방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내가 그 호텔에 시간 맞추어 갔거든. 그 호텔 로비에 한 여자가 나오는데 순간 느낌이 딱 오는 거야. 영감의 여자구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 특유의 느낌. 그럴 땐 아주 정확해. 히히.”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에는 아내가 물었다.

“뭘 어째? 내가 아무개의 마누라인데 잠깐 둘이서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랬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둘의 관

계를 부정하거나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는 않던가요?”

“어휴, 뭘 그래? 같이 늙어가면서. 본인도 영감과 의 관계를 시인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지. 둘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은 좋은데 조건이 있대! 단 한 가지다. 우리 영감이 죽을 때까지 절대 헤어지지 마라. 영감이 술을 많이 마시고 고혈압이 있어서 당신과 헤어지면 큰 충격을 받고 며칠 못 가서 죽을 것 같다. 그건 내가 영감과 몇십 년 살아봐서 잘 안다. 그날 내가 이렇게 말했어.”

“흠, 그러셨구나.”

순간, 갑자기 김광석이 다시 불러서 히트시켰던 김목경의 노래 ‘어느 육십 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노래가 생각났다. 노래가 20년 전의 60대 노부부의 정서를 담았다면 여행에서 만난 두 분의 정서는 가장 최신판의 그것이 아닐까 한다.

이야기가 빛나는 게 아닌지 모르겠지만, 행복과 불행은 자신의 가치관에서 결정되는 것 같다. 이견 맞

불 작전을 피우며 사는 노부부가 ‘맛다 틀리다’를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보다 좋은 조건 속에서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인간이 행복하게 되려면 사물이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첫째 조건이 아닐까 한다. 녹색의 안경을 쓰고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녹색으로 보이게 된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즐겁고 기쁘게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마음 먹기에 따라 좌우되지 않을까?

새로운 세기가 열린 해 2000년, 내 생애 최고의 영화 ‘화양연화(花樣年華)’를 보고 난 이후 줄곧 홍콩에 대한 매우 좋은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다. 올해 10년 만에 다시 홍콩을 여행할 기회가 생겼다. 이번에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 본다.

‘나’에서 시작되는 배려



스위스의 변화한 거리를 한 노인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주변을 두리번두리번하며 걸어가다가 때때로 허리를 굽혀 땅에서 무엇인가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길을 순찰하고 있던 경찰이 노인을 발견하고 수상하다는 생각에 말했습니다.

“이까부터 무언가를 주워 주머니에 넣던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습득물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경찰은 노인의 주머니에 든 것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체념한 듯 노인은 주머니 속에 든 것을 꺼내놓았습니다. 경찰의 손바닥 위로 떨어진 것은 다름 아닌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무엇인가 귀한 물건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경찰은 이게 무엇인가 싶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밟아서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노인이 스위스의 교육가이자 자선 사업가인 페스탈로치였습니다. 페스탈로치는 버림받은 전쟁고아들을 모아 돌보며 힘든 생활을 했던 그는, 훗날 그 보육원을 운영하던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늘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작 그들의 삶은 더 힘들고 궁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올곧은 길을 걸을 수 있는 건 그들이 보내는 시간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보람되기 때문입니다.

* 출처 : 따뜻한 하루

월간 맑고 향기롭게 읽고 모임 안내

살아가면서 느끼는 소소한 감동,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 가족 이야기 등 소중한 경험들을 자유롭게 써서 보내주세요.

맑고 향기롭게 회원, 길상사 신도 그리고 독자 참여 지면을 늘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원고는 수시로 접수합니다. 법인 사무국으로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원고를 보내주실 때는 본인의 소개(약력, 연락처, 주소, 전하고 싶은 말씀)를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가 채택될 시 귀중한 책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 보낼 곳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내 (사)맑고 향기롭게
- 이메일 : clean94@daum.net

깜깜한 방, TV 불빛만으로 생활하는 어르신을 도와주세요!

6월 결연 대상자 - 이영미 어르신(가명)

“이영미 어르신 안에 계세요?” 이영미 어르신이 함박웃음을 지으며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한낮임에도 반지하인 어르신 댁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집에 들어서면서 이영미 어르신은 불편한 두 다리를 힘겹게 움직이며 바쁘게 형광등을 켜셨습니다. “어르신 주무시고 계셨어요? 불을 다 꺼두셨네요?” 어르신은 머뭇거리다가 부끄러운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안 잤어. 그냥 평소에는 잘 안 켜.” 어르신은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TV만 켜두고 모든 전등을 끄고 어둡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게 커피밖에 없다며 커피를 타주셨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간 아들과 딸이 사무국 활동간사와 비슷한 또래라며 자녀들의 안부가 걱정되어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 결혼은 했는지, 어르신은 그저 자녀들의 소식이 궁금할 뿐입니다.

어르신은 강원도 평강 출신으로 한국 전쟁 때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친부모님은 전쟁 때 돌아가셔서 의지할 곳이 없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인 29세에 결혼했습니다. 가정적인 남편의 살뜰한 보살핌 속에서 일가친척이 없는 어르신은 남편에게 심적으로 크게 의지했습니다. 어르신은 식료품 파는 가게를 약 16년간 운영했습니

다. 하지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많은 빚만 남긴 채 집을 나갔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진 어르신은 대형마트와의 경쟁으로 수익이 크지 않은 가게를 정리했지만 빚을 갚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날부터 어르신과 자녀들은 빚 독촉에 시달리며 지옥과도 같은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정되지 못한 환경 때문인지 어르신의 자녀들도 이때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집을 나갔던 남편이 신장 기능이 떨어져 투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병든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은 남편이 원망스러웠으나 행복했던 시절의 정을 생각하고 남편을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자신들을 버리고 집을 나간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받아들인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나 봅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난 후 소식을 끊고 그 뒤로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젊은 시절 자식들에게 너무나

도 많은 상처를 준 자신의 탓이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되뇌었습니다.

이영미 어르신은 지체 하지관절 3급과 청력 5급의 장애인입니다. 무릎에는 인공관절이 들어가 있어 장시간 외출이 불가능하고 소리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매일 남편이 있는 병원에 찾아가 남편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미워도 내 남편이니 함께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영미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권자(2인 가구)로 매월 약 80만 원의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지만, 남편의 요양병원비 40만 원, 월세 20만 원, 기저귀, 약값 등을 지불하고 나면 전기세를 내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전기세 걱정으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지내지 않도록 매월 10만 원씩 1년간 생활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어르신의 희망의 빛이 되어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배려와 질서유지는 인간의 자존심

글 • 김정희(한국부름의전화 대장)

부름의전화에서는 중증재가장애인들의 사회적응훈련으로 전국의 산과 들을 찾아 시각장애인들과 걷기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적응훈련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선천적 시각장애인도 있지만, 대개의 시각장애인들이 중도에 실명하고 어려운 시간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중도에 장애를 입게 되면 장애가 큰 상처가 되어 멍을 메고 무거운 돌덩이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 고 한다.

두렵고, 괴롭고, 초조한 생각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다 삶을 포기하려는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응훈련을 통하여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봄, 여름, 가을 없이 역사, 과학, 문학의 주제에 따라 산과 들, 언덕길을 걸으며 모양과 색과 향기를 달리하며 피고 지는 꽃들과 풀 한 포기, 나뭇잎 하나까지 만져보고 냄새 맡아 보며 실명으로 단절된 세상을 뛰어넘어 실명하기 전의 세상으로 되돌이한다.

흐르는 물소리, 새소리까지 들려주려고 노력하는 자원활동자들의 마음 씩씩이에 굳게 닫아버린 마음의 문도 열어본다.

연인처럼, 형제처럼 자원활동자와 팔짱을 끼고 나란히 서서 5km, 10km를 걷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들은 사라지고 긍정적인 생각들로 채워진다. 동료 장애인들과 정보교환으로 얻어지는 장애 극복의 이야기 또한 어둠을 밝혀주는 빛과 같았다.

이런 시각장애인들의 변화가 사회적응훈련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이유다. 그래서 올해에도 15회의 사회적응훈련이 계획되었고 전국이 벚꽃 속에 묻혀있던 지난 4월 2016년 제4회 <시, 노래의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시인 고은의 고향 군산을 찾아가는 5km 걷기활동을 위해 새벽 시간에 집결지인 여의도에서 길을 떠났다.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고은 시인의 시를 낭송하고 해설하는 문학 공부로 사회적응훈련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장애인과 자원활동자가 하루를 같이할 짝이 정해지고 시각장애인 안내방법 교육도 있었다. 자원활동자교육에는 자연의 변화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물론 걷기 활동에서 앞뒤 사람과의 거리를 1.5m로 유지하도록 강조한다.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한 사회적응훈련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빨리 걷는 사람은 천천히 걷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걸음을 늦추어야 하고, 천천히 걷는 사람은 빨리 걷는 사람을 위해 걸음을 빠

르게 걸으며 타인을 배려하는 정신을 기른다. 이것은 매우 작은 일에 불과하지만 이런 작은 일을 시작으로 일상의 생활에서 질서유지와 타인을 배려하는 정신을 생활화하여 당당한 시민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시각장애인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생활하게 되는데 질서유지와 타인을 배려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가족관계는 물론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될 것이다.

차내 강의가 끝나고 버스가 정안 휴게소 입구에 도착했다. 사회적응훈련 일정에서 휴게소를 이용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논길 밭길, 제방 길 등을 걷는 동안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고속도로에서 휴게소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휴게소 주차장은 관광버스로만 석을 이루고 있었다.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전국의 관광버스가 한꺼번에 거리로 나온 것만 같았다. 가까스로 자리를 마련하고 장애인과 자원활동자가 팔짱을 끼고 화

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은 대혼란이었다. 장애인 화장실도 비장애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여러 겹으로 줄을 서고 있어 어느 줄에 서야 올바른 줄을 서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밀고 당기고 그 바람에 저절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한다. 그 바람에 하마터면 장애인이 넘어질 뻔했다. 넘어지면 꼼짝없이 압사 사고가 날 것이다. 자원활동자 한 사람이 장애인이 염려되었는지 최선을 다하여 장애인 주변의 사람들을 몸으로 막아섰다.

누군가 “와~ 난리다. 6.25 전쟁은 전쟁도 아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바로 그때였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왔다. 잠시 서성이더니 뒤에서 한꺼번에 몸으로 밀었다. 그 바람에 줄을 서고 있던 사람들이 화장실 안쪽으로 밀려들어 갔다. 밀려들어난 사람들은 어부지리로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지만, 화장실에서 나온 사람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무질서의 극치였다.

부끄러웠다. 외국의 관광객이 이

런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를 어떻게 평가했을지 궁금했다.

얼마 전 일본 구마모토 현에 끔찍한 연쇄 지진이 일어났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일시에 집을 잃고, 먹을 것 입을 것도 없이 대피소에서 도움을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TV로 보았다. 위기의 상황인데도 혼란스럽고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 구호품이 늦어져도 정부나 지자체를 탓하는 사람도 없었다. 오히려 고구마 두 개를 몇 사람이 나누어 먹어야 하는 형편임에도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머리를 숙이는 모습은 존경스럽다 못해 눈물이 났다.

어느 한 곳에서만의 일이 아니었다. 지진으로 집을 잃고 피난소에서 지내고 있는 곳곳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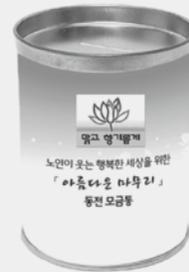
또 다른 날 뉴스 시간에 본 모습이였다. 공원의 피난소에서는 거의 2시간가량 길게 줄을 서서 물과 음식 배급을 받았지만 충분한 물량을 배급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줄이 흩어지

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 가족 8명에게 죽 두 그릇을 배급해 주었지만, 더 달라는 사람이 없었다. 똑같이 어려운 처지였지만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말에 자신의 음식을 건네주기도 했다. 그 사람들의 질서의식과 타인을 배려하는 정신이 놀랍고 부러웠다. 그들이 너무도 크게 보였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한다. 만일 우리에게 그런 위기의 순간이 발생했

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사회규범을 지키는 일이 모든 사람을 편리하게 하고 여유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사회적응훈련 때마다 강조했다만 과연 우리에게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

휴게소에서 있었던 일이 내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타인을 배려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인간의 자존심이 아닐까?



노인이 웃는 행복한 세상을 위한 동전 모금 캠페인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각 지역모임 실정과 형편에 맞게 노인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앙모임에서는 독거노인 반찬 나눔, 김장 지원, 난방비, 의료비 지원, 차상위 독거노인을 위한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지역모임은 점심공양 나눔 및 도시락 배달, 독거노인 가정방문을 통한 반찬 나눔,

위안부 할머니 돕기 및 독거노인 결연지원활동, 노인시설 방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고령사회와 노인자살예방을 위하여 전국 회원과 길상사 신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여진 동전은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이나 길상사 종무소로 직접 가져오시거나, 신한은행 100-013-787953(맑고향기롭게)으로 직접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노인이 웃는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동전 한 닢부터 나누는 생활 속 실천운동에 많은 분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말은 절대로...

글 • 고현희(공감대화 개발원장)

길상사 봄밤이 싱그럽습니다. 봄 밤의 연등들이 장엄합니다. 친구와 천천히 걸으며 이 소소한 즐거움에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걸으며 말합니다.

‘사무실에서 한 사람하고 계속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다가, 어제는 내가 드디어 폭발해버렸어. 다시는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고 소리 질렀거든…….’ 이렇게 불편했던 일을 털어놓는다면, 어떤 말로 공감해주시겠어요?

공감해주는 말 적어보기 : _____

공감해주는것은 상대와 같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상대의 ‘느

낌’과 그 느낌이 생기게 된 ‘바람’을 짐작해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깊이 상황을 관찰하면 ‘느낌’과 ‘바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관(觀)하시는 관세음보살님처럼 집중하고, 마음 열고 들어야 합니다. 나의 ‘느낌’과 ‘바람’을 찾기도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느낌’과 ‘바람’을 짐작하는 것은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딱 맞출 수도 있습니다. 틀려도, 비슷해도, 딱 맞추어도 다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한 걸음 다가간 것이므로 모두 공감입니다.

틀렸다면, 다시 한 걸음 다가가면 되고, 비슷하다면 방향을 조금 고치면 됩니다.

친구에게 ‘불편한 사람에게 드디어 폭발했구나? / 너는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화났었구나? / 그 사람과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 라고 공감해주는 말을 적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감을 받은 친구는 마음이 가라앉고, 상황을 설명하려고 마음이 열립니다. 천천히 다음 말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 말은 공감을 받아 마음이 열려서 아주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친구는 말을 하면서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지요. 공감을 받으면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의 말을 계속 들으면서, 계속 공감을 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참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는 참을성을 좀 더 길러야 해.’

‘지난번에도 폭발하고 후회하더니 이번에도 또 그럴 것 같은데…….’

‘나도 어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너는 잘못된 것 없어. 진작 그랬어야 해.’

‘그만 생각해. 그런 사람하고는 앞으로 절대 말하지 말아버려.’

이런 말(조언, 판단, 평가, 비판, 나의 사례 말하기 등)들은 공감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해하는 대화입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느낌’과 ‘바람’을 관(觀)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것이 공감하기입니다.

공감은 동감과는 다릅니다. 그 사람과 같은 느낌일 때 동감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공감입니다. 때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의 손을 꼭 잡아주거나, 상대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어도 됩니다. 이런 행동도 공감하기입니다.

‘엄마, 지난번에 우리가 안 사고 구경만 한 그 장난감을 친구가 가지고 있었어. 나도 사줘.’ 라고 유치원 자녀

가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지 적어보세요.

엄마의 말 : _____

공감대화를 강의하면서 절절히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조언, 판단, 평가, 비판, 나의 사례 말하기 등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커가면서 귀를 닫습니다. 아니, 저절로 귀가 닫힙니다. 너무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어른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저절로 귀가 닫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에게 말할 때 짧은 문장으로 하기, 길어질 수밖에 없다면 중간에 끊기를 연습 시킵니다. 대화는 핑퐁입니다. 짧게 말하고, 질문형으로 하고, 아이들의 답에 다시 짧게 공감하여야 합니다.

엄마는 공감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그 장난감 가지고 있는 것

을 봤을 때 엄청 부러웠구나?’

‘그 장난감이 많이 갖고 싶구나?’

‘엄마는 네 말을 들으니까 좀 곤란하다. 그때 안 사기로 같이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었지?’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니 또 졸라대니? 안 사기로 했잖아. 약속 지켜야지? 또 시작이네…….’

‘장난감이 얼마나 많은지 봐봐, 다른 것 가지고 놀아. 엄마는 장난감 몇 개 없이도 잘 놀았거든.’

‘엄마하고 그때 의논해서 안 사기로 했지! 근데 왜 그러니? 다시 말하지 마.’

올해는 길상사의 봄밤에 연등이 주는 황홀함과 친구와의 속 깊은 대화가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던 추억이 생겼습니다. 모두 편안한 날들 만드세요.

마음 빛

글 • 김광석(나고아대학 교수)

부모님이 나를 낳아 주셨다면 할머니는 나를 키워 주신 거나 다름없을 것이다. 어렸을 적 나의 정신적인 지주였고 언제나 내 곁에 앉아 늘 이것저것 챙겨주셨던 나의 할머니다. 늘 나는 할머니 곁에서 풀주머니 같은 할머니의 가슴을 만지며 잠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아마도 초등학교 마칠 무렵까지도 그랬던 것 같다. 딸이 많은 우리 집이어서 할머니로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손자였다. 늘 먹을 것과 간식거리는 다른 형제들 몰래 선반 위에 감춰 두었다가 살짝 불러 얼른 손에 쥐여 주셨다. 간식거리라야 고작 고구마나 말랑말랑한 홍시거나 아니면 어디서 손님이 올 때 들고 온 농금이나 달콤한 눈깔사탕이 고작이지만, 당시에는 지금의 그 어떤 먹거리보다 맛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할머니가 부산에 계신 작은아버지 댁에 다녀오시고 나면 나는 최소한 몇 달은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보지도 못한 말랑말랑한 고무 과자에다 입에 넣으면 금세 녹은 골무처럼 생긴 뽕튀기 과자, 그리고 비닐처럼 생긴 얇은 것에 쌓인 젤리 같은 것은 시골에서 자란 촌놈에게는 더없이 신기한 최고의 선물이었다. 더 신기한 것은 늘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하시면서도 또 나오고 또 나오는 요술주머니를 달고 계신 것이다. 할머니의 요술주머니는 먹을 것만이 아니었다. 내가 아버지한테 야단맞거나 매 맞은 날엔 내 곁에 다가와 구슬 같은 눈물을 푹푹

흘리시며 “아이고 모진 놈 어찌면 저렇게도 매정하고, 어서 내가 죽어야지 이런 꼴을 안 보지”라고 하시며 귀한 손자녀석이 매 맞는 것을 안타까워하셨다. 아마도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저지른 가장 큰 불효라면 나를 때린 것이었을 거다. 내가 아버지께 얻어맞아 엉덩이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으면 밤새 그곳을 쓰다듬으며 눈물로 신음하며 밤을 지새웠으니 말이다.

이런 할머니는 당신의 아들이 저지른 손자 녀석에 대한 모진 행동에 대해 늘 돈으로 보상하여 일을 수습하곤 했다. 당시 일 원짜리 동전 하나면 눈갈시탕을 네 개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매 맞는 날엔 늘 할머니한테 보상금을 청구했다. 이를테면 할머니에게 생뽕을 쓰는 것이다. “나 집 나갈 거야. 나 집 나가서 저산에서 혼자 살 테니까 할머니도 나를 찾으려고 생각지도 마”라고 하기도 하고, “나 지금부터 밥도 안 먹고 굶어서 죽어버릴 테니까 할머니도 나보고 밥 먹으라고 하지 마”라고 말도 안 되

는 공갈협박을 해서 할머니의 허리춤에 숨겨 둔 동전을 우러내곤 했다.

한두 번도 아닌 상습 공갈협박범 손자 녀석의 속내를 왜 몰랐겠는가. 그러면서도 할머니의 요술주머니에 서는 그때마다 나의 매 맞은 정도에 따라 종이돈이 나왔다가 구멍 뚫린 5환짜리가 나왔다가 일 원짜리가 나오는 등 아버지의 뒤처리를 할머니가 도맡아 하셨다. 그러는 할머니 덕택에 나는 산에서 살 일도 없었고 밥을 안 먹는 일도 없어서 지금 이처럼 건강한 몸을 지녔을지도 모른다.

어느 여름날 옛장수의 옛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물론 낮이라서 부모님과 소처럼 일하는 누님들은 들에 나가고 집에는 귀한 두 손자 녀석과 할머니만이 집을 지키고 있었을 때였다. 나는 옛이 먹고 싶었다. 그러나 다 떨어진 흰 고무신도 부서진 쟁기 날도 다 비우고 남은 소주병도 찌그러진 냄비도 우리 집에는 없었다. 옛을 바꿀만한 것이 전혀 없는 상태였지만 먹고 싶은 옛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러던 찰나에 할머니의 머리카락도 좋다고 옛장수는 노래하고 있었다. 순간 할머니의 긴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길어서 푹푹 말아 뒤로 올려서 비녀를 꽂아놓은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옛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나는 당연한 것처럼 “할머니 머리카락도 옛을 준다고 하는데”라고 할머니를 다그치자, 두말도 안 하시고 방에 들어가더니 가위로 싹둑 잘라 한주먹을 주셨다. 신이 나서 동생을 데리고 옛장수한테 달려가서 당당하게 옛을 달라고 했더니 옛장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다음부터는 이런 거 안 받는다고 하며 옛을 한 아름 건네주었다. 옛장수도 할머니 머리카락을 보고는 일련의 사태를 짐작한 모양이었다.

이렇게 자란 나는 할머니에게 늘 마음 빛이 그대로 남아 있다. 나는 유학을 떠나 올 때도 할머니께 말씀도 못 드렸다. 어찌면 할머니는 끝까지 이 큰 손자를 기다렸을지도 모른다. 최소한 먼 길을 떠나가기 전엔 한 번 쯤 들리리라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

른다. 그러던 할머니는 기다리다 지쳐서인지 내가 출국하고 두 달도 채 안 돼서 향년 95세로 세상을 떠나 버린 것이다. 늘 받기만 했던 큰 손자는 남은 세월 할머니에 대한 빚을 고스란히 짊어진 채 살아야만 한다.

할머니의 큰 손자가 올 때까지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기다리겠다는 아버지의 뜻으로 다행히도 마지막 가는 할머니를 어루만져 볼 수 있었다. 그때 할머니의 그 따뜻한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 차디찬 얼음 덩어리처럼 되어 있었다. 어찌면 무심한 손자 녀석의 할머니에 대한 배신에 싸늘하게 돌아섰는지도 모른다. 이런 할머니께 큰 손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두 손 모아 합장하며 극락왕생을 빌 뿐이다. 후회와 참회의 눈물로도 대신 할머니를 어찌할 수 없다. 누워계신 할머니 산소에다 내 아무리 금이야 옥으로 덮어씌운 들 할머니를 위함보다 나 자신의 생색이 될 것만 같아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오늘도 나의 할머니께 두 손 모아 합장한다. 이것이 불효 손자에게 남은 업이라 여기며,



장학생에게서 온 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맑고향기롭게에서 주신 길상화 장학생으로 추천된 부산공고 000입니다. 맑고향기롭게에서 주시는 장학금을 받은 덕분에 학업에 들어가는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고 학업에만 열심히 몰두할 수 있습니다. 선정해주신 이사장님과 후원자님께 감사한 마음을 이 편지지에 다 담을 수는 없기에 그저 감사하다는 말만 드리게 됩니다.

이사장님께서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맑고향기롭게 장학금을 받게 된 서울사대부고 학생 000입니다. 지난번 장학증서 수여식 때 길상사에 찾아가서 뵈었지요. 그때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봉사활동이나 그냥 들려서 찾아뵙겠습니다. 저를 믿고 장학금을 주신 만큼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학교생활은 아직도 약간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벌써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요. 학교 선생님도 너무 좋은 분들이라 다행입니다. 그래서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우리 학교에 선농고양이카데미라는 활동에도 참여해서 책도 많이 읽고 과제도 하고 있어요. 이제 슬슬 봉사활동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고등학교 올라오니깐 웬지 너무 비싸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달에는 쉬는 날, 노는 날이 많아서 숨 좀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학교생활 얘기만 했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루일과가 집이랑 학교뿐이에요. 10시 30분에 야자(야간자율학습)가 끝나서 집에 돌아오면 씻고 바로 자야 해요. 이렇게 학교에서 살다시피 해서 공부하는데 잘 안되어 답답하고 걱정이랍니다. 그래도 잘할 수 있겠죠? 이제 시작이니까 저만의 공부방법도 찾아보고 진로도 정해보려고 해요. 아직 꿈이 없어서 걱정이랍니다. 이과, 문과도 정하지 못했는데 다른 애들은 다 멋진 꿈이 있어서 부러워요. 최대한 빨리 저의 꿈을 찾고 싶어요. 지금 저의 머릿속에는 공부랑 꿈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 얘기를 뽀인가 봐요. 다음에 또 편지를 보내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뵈었던 스님과 담당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 마지막으로 저에게 장학금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올버린 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주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히 계세요.~~~

교도소에서 온 편지

꽃이 피었습니다.

들꽃이지만 예쁩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충만합니다.

사랑이 있다면

이럴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저 있으므로 해서

가득하였으면 싶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생물자원의 보물창고 무등산 - ①

글 • 박희준(사찰생태연구소 생태연구팀장)

광주의 지형

무등산이 있는 광주광역시에는 호남지방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삼국시대에는 무주(武州) 또는 무진주(武診州)로 불리던 행정·군사상의 요충지였으며, 광주라는 명칭은 고려초에 쓰이기 시작했다.

무등산에서 발원하여 흘러내린 광주천은 광주지방을 관통하여 흐르면서 주변에 저평한 평야를 만들고 있는 영산강 본류와 합쳐진다.

무등산은 광주의 진산으로 광주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산으로 백악기 말에 분출한 안산암으로 이루어진 산꼭대기에는 주상절리에 의한 '서석대'와 '입석대' 같은 독특한 지형이 나타나는데, 주상절리는 제주도의 서귀포 해안가, 전곡 등 우리나라

라에서는 매우 드문 특이지형이다.

무등산을 지키는 동·식물

2000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확인된 무등산의 생명은 식물 120과 417속 710종 124변종 11품종 등 총 845종류의 관속식물, 너구리, 멧돼지, 오소리, 노루, 고라니, 멧토끼, 고슴도치, 삵 등 15과 25종의 포유류, 검은땃기해오라기, 말뚝가리, 검은등뼈꾸기, 쪽독새, 청호반새, 청딱따구리, 오색딱따구리, 큰오색딱따구리, 물레새, 물까마귀, 물까치, 붉은배새매, 조롱이, 새매, 황조롱이, 소쩍새, 큰소쩍새 등 78종의 조류 등 매우 다양한 식물의 생육과 동물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식물상은 지역의 기후적 특성을 가

장 잘 반영해 주는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위의 자료에서 확인된 식물상 중 난대 숲의 요소에 해당하는 식물 종들은 나도밤나무, 팥나무, 마삭줄, 아왜나무, 정금나무, 수리딸기, 털조장나무, 노각나무, 매미꽃, 개비자나무, 큰찬남성, 예덕나무, 줄사철, 합다리나무, 말오줌때, 개구리발톱, 비자나무, 쇠고비, 삐죽나리 등이 있다.

이 외에 자료에 의하면 고란초, 부채붓꽃, 깽깽이풀, 가시오갈피, 선포아풀, 장성사초, 난쟁이붓꽃, 매미꽃, 각시괴불나무 등 종 보존가치가 높은 식물들이 생육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장성사초와 매미꽃을 제외하면 1970년 이후 실제 자연에서의 생육이 보고된 사례가 없어 안타깝다.

한편, 무등산의 삼림 식생을 살펴보면 2차림으로 신갈나무군락, 졸참나무-신갈나무군락, 소나무군락, 졸참나무-소나무군락, 상수리나무-졸참나무군락, 졸참나무-굴참나무군락, 상수리나무-굴참나무군락, 리기다소나무식재림, 편백식재림, 삼나무식재

림이 조성되어 있으며, 장불재와 꼭막재 등 무등산 정상부근은 군부대 이전지역에 대한 복원의 일환으로 역사군락이 조성되었다.

무등산의 풀, 나무

6월을 장미의 계절이라 했던가? 지금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도심지 주변으로 덩굴장미가 한창 예쁜 자태를 뽐내고 있다. 하지만 무등산에는 장미가 없다. 식물들이 어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꽃을 장미에 비유한다면 무등산을 가장 아름답게 해주던 많은 식물이 사라졌다. 자료조사 결과 1970년에 조사되었던 그 많던 중요한 식물들 즉, 무등산의 장미가 지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무등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진입로를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길 양쪽의 가로수인데 좌측은 왕벚나무, 우측은 툄림나무이다. 가로수를 심을 때 보통은 양쪽에 같은 나무를 심는데 여기 무등



산 입구 진입로의 한쪽은 한국특산 종인 왕벚나무, 한쪽은 외래종인 톨립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왕벚나무가 있는 좌측은 곧바로 산으로 연결되는 지역이 많다. 이곳에 광나무, 마삭줄을 비롯하여 살펴볼 식물들이 많으므로 관심 가지고 살펴볼 만하다.

광나무는 쥐똥나무와 같은 물푸레나뭇과의 상록성 키 작은 나무로서 쥐똥나무와 비슷하지만, 잎이 두꺼운 가죽질이다. 전남, 경남 이하의 지방에서 자라고 7~8월에 꽃이 피고 10월에 열매가 검게 익어 겨울까지 남는다. 올해는 6월이 지금에도 꽃이 피고 있다.

마삭줄은 상록성 덩굴식물로 땅을 기기도하고 나무나 바위를 타고 올라가기도 한다. 꽃은 5~6월에 흰색으로 피어 노란색으로 변하며 시든다. 열매는 9월에 익어 갈라지고 씨앗은 바람에 날아간다. 최근에는 원예용으로 개발되어 지피식물로 심



마삭줄

기도 하지만 추위에 약하여 남쪽에서 주로 이용한다. 상가가 있는 지역을 지나 산으로 들어서면, 계곡 주변으로 사람주나무가 눈에 보인다.

사람주나무는 평활한 수형 위로 꽃대를 세워 꽃을 피우고 열매가 달리면 아래로 처지는 암수 한그루의 중간키의 나무이다. 내륙에서는 충청도, 해안으로는 동쪽은 설악산 산홍사계곡, 서쪽으로는 대청도까지 자라고 있다. 어떤 이는 사람주나무를 설명할 때 사람이 주인인 나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억지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풀, 나무 이름을 기억하기에는 좋다. 마치 예덕나무를 예와 덕을 겸비한 나무라고 기억하는 것처럼 말이다. (다음호에 계속)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부처님오신날과 함께한 맑고 향기롭게 문화 캠페인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부처님오신날에 맑고 향기롭게 근보도량 길상사를 찾는 많은 불자님과 방문객에게 맑고 향기롭게를 알리고,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체험마당과 문화행사, 녹색나눔장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에도 수많은 불자님이 부모님과 아이들과 함께 길상사를 방문하셨고, 길상사 신행단체 봉사자님들도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히 임하여 오전부터 저녁까지 관육의식, 봉축법회, 문화행사, 길상음악회가 원만하게 회향될 수 있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는 정량 쪽 마당에서 친환경 체험마당, 녹색나눔장터,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나무 공예 목걸이 색칠하기, 부채&펜던트&팀블러 색칠하기, 즉석 꽃 책갈피 만들기, 판화 찍기 체험 등 체험 이벤트와 리폼용품, 친환경 수제화 장품, 미안마에서 온 불교용품, 인사동에서 온 각종 액세서리, 재활용 용품의 베품시장, 유기농 장류, 시원한 생과일 주스, 추억의 먹거리 등을 준비했었고, 진영각 올라가는 길목에 법정스님 사진 전시회, 법정 스님과 사진 찍고(현수막 이용) 바로 인화하는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페이스페인팅,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 박창근과 그룹 TAAL 이 재능기부로 참여해준 맑고 향기롭게 홍보 및 모금

거리공연을 진행하여 길상사를 찾는 불자님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캠페인에서는 대학생들이 모금활동가로 나서서 노인 자살 예방 안내, 동전 모금통배포, CMS후원 및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와 연꽃 스티커를 나누며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몸소 알리고, 법정 스님 진영각을 방문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내와 정리, 정돈을 깔끔하게 해주었습니다. 봉축 문화 행사에 참여해주신 봉사자와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숲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안내

- 주제 : 숲과 전통시장을 찾아서
- 6월 4일 : 전북 모악산김제권아, 금산사, 익산장
- 7월 2일 : 충남 상왕산 목초지와 숲, 개심사, 서산 서산장
- 참가방법
 -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이상 ~ 만 65세 이하
 - 접수 : 7월 숲가행은 6월 7일부터 선착순 40명 전화 및 방문 접수(중앙사무국)
 - 준비물 : 식수, 간식, 모자, 등산화, 필기구 등 (비울 가능성이 있는 날에는 우비 준비)
 - 참가비 : 35,000원(장터 점심 식비 포함)
 - 입금처 : 외환은행 301-22-00270-1
 - 예금주: 맑고 향기롭게
- 참가비 환불 원칙
 - 참가비 입금은 신청 후 5일 이내로 하셔야



하며, 참가비 환불과 이월은 출발 5일 전
까지만 가능하며, 이후 취소 시 결식 후원
금 처리하오니 신중하게 신청해주세요.
(빈번한 취소, 변동은 줄이고자 함)

- 장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접수처 : 중앙모임 02-741-4696

녹색 나눔 장터 참가자(팀) 및 봉사자 모집합니다

(사)맑고 향기롭게는 생활 속에서 재사용과 자
원순환의 녹색 문화를 공유하고자 작은 길상
사 경내에서 녹색 나눔 장터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녹색 나눔 장터'는 4월에 시작하여 10월
까지 넷째 일요일(월 1회 개최 예정)에 회원님
과 신도님이 즐겁게 참여하고 운영하는 장으로
펼치고자 합니다.

장터 참여 가능한 품목은 오래된 물건을 새로
게 리폼한 소품, 직접 재배한 유기농산물, 수제
천연화장품&친환경 세제, 재고로 남은 환경
용품, 공예소품, 친환경 먹거리 등이며, 개인
재활용품을 베풀기장으로 참여하셔도 됩니다.
참가는 사전에 접수하여야 하고, 수익금 일부
를 불우이웃 돕기 기금으로 후원해주셔야 하
며,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 일회용 용기는 쓰지
않고, 장터가 끝나고 남은 물건은 기증하거나
잘 챙겨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올해 장터는 현욱과 현도서는 기증받지 않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 활동 봉사자 모집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밑반찬을 지원합니
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치 않고 씩씩
해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 전화 말벗 자원 활동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
눔 대상자 중 홀몸노인, 장애인 등에게 봉사자
가 가정에서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
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
를 지켜보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
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
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으니 대화기법
·상담 등에 소질이 있는 분은 함께해주세요.

* 진인노인요양원 정기 자원 활동 : 진인요양원 자
원 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
으로 진행됩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참여하실 봉
사자를 찾습니다.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8시 30
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정기 자원 활동(매주 월요
일, 매월 첫째 일요일)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
원 활동은 어르신을 위한 점심 무료급식 활동
으로 배식, 설거지 등을 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봉사팀은 봉사 당일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
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지하
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 '아름다운 만남' 청소년 정기 자원 활동 : 청
소년 자원봉사자가 홀로 어르신의 집을 월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말벗과 청소를 해드리고,
안마나 동네 산책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생동감
과 발랄함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경제
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축된 어르신을 위로
하고, 생의 의지를 돋우는 프로그램입니다. 함
께 할 청소년 봉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
소년 자녀를 둔 회원님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의류 리폼(재단, 디자인) : 생활 속에서 실천
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
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
을 만들어 녹색 장터를 통해 판매,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모임은 매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 정기 자원 활동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독거노인의 생계비 지
원 및 자살예방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펼치고 있
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해 노인 자살의 주요
원인인 경제적 빈곤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 기부
문화 진작을 통해 법정 스님의 청빈한 가르침을 함
께 나누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으며, 매달 발간하
는 소식지에 후원이 필요한 독거노인 1명의 사연
소개와 다음카카오톡 '같이가치' 온라인 모금과 더
불어 1~2회 거리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
성된 기금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의 생계비 지원
을 위한 결연 후원, 의료비·난방비 지원, 사례 관
리의 공익사업비로 전액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
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
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
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일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
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
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
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
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
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우편비도 소정의 금액을 후
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
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
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
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
해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도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6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2일(목/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일요특강 '길상사 오감 경영 아카데미' : 26일(넷째일)오전 11시/명심보감에서 배우는 무소유/김병조/설법전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목, 금요일(2,3,16,17,23,24,30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3월~11월 둘째 목요일(9일)/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13,20,27일)/매월 첫째 일요일(5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활동/ 수시 모집 중/ 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진인노인 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일요일(12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요일(28일)/오후 1시 30분/사무실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토요일(18일)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캠페인: 26일/길상사경내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7,14,21,28일)/세계일화실
- 의류 리사이클링 강좌모임 : 매주 금요일(3,10,17,24일)/세계일화실
- 녹색나눔장터: 넷째 일요일(26일)/길상사경내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짝수달 매주 수요일(1,8,15,22일)

〈정기 재정 후원〉

-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정기 후원
- 서울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 결식아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 장학금 후원계좌
외환은행 141-22-01683-9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 ☎02)741-4696



대구모임 (053-753-8883)

- 정기 홍보활동 : 맑고 향기롭게 스티커, 홍보책자, 동전 모금통을 관공서, 지하철역 등에 배포 및 홍보활동
 - 홀로 어르신 밑받침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봉사/자원봉사자수시모집
 - 어르신 웃음교실 및 토요 경로급식 : 매주 토요일/10시 30분-음식조리/11시 30분-웃음치료강의/12시 30분-점심 및 차담/2시-마무리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월 첫째 화요일 11시
-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문화기행 : 문화유적답사, 숲기행, 강길따라걷기/주변 환경 정화활동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받침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월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월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밀반찬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밀반찬 배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 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2,3주 토요일
 - 숲기행 자연보호활동 : 매월 4주 월요일
-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

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5만원/각 회차(100일)
- 동참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매일 20가구씩 차례대로 축원을 올려드립니다.
- 설판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2회차 기도가 5월 20일(금) 입재되었으며, 동참하실 분들은 종무소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지장전 천일기도 (600일 회향)

- 일시 : 6월 1일(수) 오전 9시 20분
- 장소 : 지장전
- 관육의식 및 100일 시식이 있습니다.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 6월 4일(토) 오후 7~9시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기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6월 5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6월 11일(토) 오후 8시 30분 ~ 6월 12일(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기도

- 일시 : 6월 22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관음재일 기도

- 일시 : 6월 28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주말 선 수련회 (템플스테이)

- [248기] 6월 18일(토)~19일(일)
- [249기] 6월 25일(토)~26일(일)
- 수련비 : 5만원
- 장소 : 설법전

백중기도 안내

백중(우란보살)을 맞이하여 불·법·승 삼보에 대한 지극한 믿음으로 효를 실천하고, 조상영가의 극락왕생과 다겁생의 업장을 소멸하는 백중기도를 봉행합니다.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일정]

- 입재 : 5월 21일(토) / 초재 : 7월 6일(수) / 2재 : 7월 13일(수) / 3재 : 7월 20일(수) / 4재 : 7월 27일(수) / 5재 : 8월 3일(수) / 6재 : 8월 10일(수) / 막재(회향) : 8월 17일(수)

자비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 안내

길상사 종무소에서는 자비의 동전 모으기 저금통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모아 주신 정성은 길상사의 사회공헌 활동에 쓰입니다. 또한 모금액은 연말정산 기부금에 포함해 드리며,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주지스님께서 직접 축원해 드립니다.

- 극락전 1년등(가족등, 영가등)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극락전 연등은 내년 2월까지 달아드립니다.

6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지장전 천일기도 600일 회향	6월 1일(수)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천수다라니기도	6월 4일(토)	저녁 7시	극락전
초하루법회	6월 5일(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기도	6월 19일(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6월 22일(수)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6월 28일(화)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저녁 7시	지장전
금강경독송 천일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세심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회의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	도서관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소강당



사진·진각

자그마한 연못에 피어 있는 연꽃을 보니
십만 평 연못에서 본 그런 추상적인 연꽃들과는 다르고
향기 또한 훨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거창하고 드넓은 것보다도
어느 집 안에서 조출하게 가꾸어
그 향기가 이웃에게 조금씩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맑고 향기로운 절이 그림습니다.

〈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중에서 〉



함께 나눠 보실래요?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나누는 기쁨이 없다면 사는 기쁨도 없다.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있는 한 나눌 것은 있다.

- 법정[法頂]

한국경제가 총체적 난국이라고 합니다. 거시경제 지표는 악화되고 있고, 실업과 수출 상황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입니다.

법정 스님께서서는 어려울수록 물질뿐 아니라 말 한마디, 표정 하나라도 나누며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도 한때일 뿐이라 하셨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할 때 30~40m에서 장애물을 만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남은 세계가 있으므로 이 한때를 잘 극복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 붙여 살고, 나누어 주며 살자는 실천덕목에 따라 이웃들과 나누는 사업을 서울과 광주, 대구, 경남, 부산에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중앙모임에서는 1999년 100가구를 시작으로 진행한 반찬 나눔 활동은 현재 500가구로, 장학금 지원사업은 연간 50명의 장학생으로 확대되었고, 광주모임은 공양나눔센터와 무소유 카페를, 대구모임에서는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여 뜻을 함께하는 회원들과 함께 맑고 향기로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가난한 것은 나눔이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법정 스님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나누는 일을 함께 해보셨으면 합니다.

